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최근 경제동향  
국내경제전망  
이슈분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 21-3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1. 7.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변 양 규	연 구 위 원
설 윤	연 구 위 원
김 창 배	부 연 구 위 원

## &lt; 차례 &gt;

요 약 .....	v
<b>제 I 장 최근 경제동향</b> .....	1
1. 경제성장 .....	3
2. 소비 및 투자 .....	4
3. 수출입 및 경상수지 .....	5
4. 물가 .....	6
5. 고용 .....	8
6. 금리와 환율 .....	9
<b>제 II 장 국내경제전망</b> .....	11
1. 대내외 여건 .....	13
(1) 대외여건 .....	13
(2) 대내여건 .....	16
2. 2011년 하반기 국내경제전망 .....	17
<b>제 III 장 이슈분석</b> .....	27
1. 도입 .....	29
2. 소득 양극화 및 불균등도 추이 .....	30
(1) 소득의 분포 .....	30
(2) 교육비지출의 양극화 추이에 대한 논쟁 .....	32
(3) 사회보험지출의 양극화에 대한 오해 .....	34
3. 양극화에 대한 개념적 오해 .....	35
4. 상대적 불평등도, 절대적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개념 .....	36
5. 결론 .....	41
<b>참고문헌</b> .....	42
<b>부 록</b> .....	43

< 표 차례 >

<표 I -1> 경상수지 .....	6
<표 I -2> 연령별 취업자 증감 .....	9
<표 II -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14
<표 II -2> 유가 전망 .....	15
<표 II -3> 주요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	16
<표 II -4> 전망의 주요 전제 .....	18
<표 II -5>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	20
<표 II -6> 2011년 국내경제전망 .....	25

## &lt;그림 차례&gt;

<그림 I-1> GDP 증가율	3
<그림 I-2>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3
<그림 I-3> 소매판매	4
<그림 I-4> 설비투자	4
<그림 I-5> 건설기성	4
<그림 I-6> 수출단가 및 물량	5
<그림 I-7> 수입단가 및 물량	5
<그림 I-8> 수출입 증가율	6
<그림 I-9>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7
<그림 I-10> 수입물가(원화기준)	7
<그림 I-11> 아파트 매매가격	8
<그림 I-12> 아파트 전세가격	8
<그림 I-13> 취업자 증감 및 실업률	9
<그림 I-14>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10
<그림 I-15> 원화환율	10
<그림 II-1> 최근 국제유가 추이	15
<그림 II-2> 가구 소득	19
<그림 II-3> 소비심리지수	19
<그림 II-4> 건설기업 BSI	21
<그림 II-5> 건설수주	21
<그림 III-1> 소득양극화 및 불균등도의 추이	32
<그림 III-2> 교육비 지출 양극화의 추이	33
<그림 III-3> 불평등도 및 양극화 비교	38
<그림 III-4> 소득불평등도 및 양극화 추이	40

## I. 최근 경제동향

- 2011년 2/4분기 성장률 3.4%, 전 분기(2011년 1/4분기) 대비 0.8%p 하락
  - 거시정책 정상화,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성장률 둔화 추세 지속
    - 전년동기 대비(%): 4.4(2010. 3/4분기) → 4.7(4/4분기) → 4.2(2011. 1/4분기) → 3.4(2/4분기)
    - 전기 대비(%): 0.6(2010. 3/4분기) → 0.5(4/4분기) → 1.3(2011. 1/4분기) → 0.8(2/4분기)
  
- 소비는 회복세 유지한 반면 설비투자 둔화되고 건설투자 부진 지속
  - 소매판매액: 4~5월 중 5.6% 증가하며 견조한 회복세 유지
  - 설비투자: 4~5월 5.1% 증가에 그치며 둔화세 지속
  - 건설투자, 4~5월 중에도 10.9% 감소하며 부진 지속
  
- 수출입 모두 큰 폭의 증가세 유지
  - 수출은 전 분기에 비해 증가세 둔화, 수입은 확대
    - 수출(전년동기 대비, %): 23.8(2010. 4/4분기) → 29.6(2011. 1/4분기) → 20.0(2/4분기)
    - 수입(전년동기 대비, %): 24.6(2010. 4/4분기) → 25.9(2011. 1/4분기) → 27.2(2/4분기)
  
- 경상수지 1~5월 중 62억 달러 흑자, 전년동기(48억 달러)에 비해 확대
  - 상품수지의 흑자폭은 축소된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에 기인
    - 상품수지(억 달러): 122(2010. 1~5월) → 109(2011. 1~5월)
    - 서비스수지(억 달러): -53(2010. 1~5월) → -27(2011. 1~5월)

■ 소비자물가, 1월 이후 6개월 연속 4%대 상승률(상반기 전체 4.3% 증가)

- 농산물 가격 급등세 진정 등에도 불구하고 원유 및 원자재 가격 등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이 물가 전반에 파급되면서 고물가상황 지속
  - 근원인플레이션의 오름세도 지속적으로 확대(6월 3.7%)

■ 고용회복세 유지되고 있지만 취업 고령화 확대

- 2/4분기 중 취업자 수 전년동기 대비 약 40만 명 증가
  - 취업자(만 명): 36.9(2010. 3/4분기) → 35.8(4/4분기) → 42.3(2011. 1/4분기) → 40.2(2/4)
- 하지만 40세 미만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고령화비중 확대
  - 15~39세 취업자 비중(%): 42.1(2010. 1/4분기) → 39.6(2011. 2/4분기)
  -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 30.0(2010. 1/4분기) → 33.3(2011. 2/4분기)

■ 시장금리 1, 3, 6월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큰 영향 없이 완만한 하락세

-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풍부한 유동성,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금리상승압력 약화

■ 원/달러 환율 하락추세 지속

- 글로벌 달러 약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 유입, 무역흑자 등으로 달러 공급 우위의 시장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
  - \* 원/달러(평균): 1,087(2011. 4월) → 1,084(5월) → 1,081(6월) → 1,055(7/26)

## Ⅱ. 국내 경제전망

### 1. 대내외 여건

#### (1) 대외여건

- 세계경제,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확대
  - (세계경제) IMF,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 (미국) 2차 양적완화 종료, 신용등급전망 하향, 부채한도증액 협상 난항 등 불확실성 증대
    - (일본) 지진/원전사태의 영향 등으로 회복추세 복귀 지연 예상
    - (유로지역)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전망 여전히 불확실
    - (중국) 긴축강화가 변수이지만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음.
- 하반기 국제유가, 상반기와 유사한 약 105달러/배럴 내외로 예상
  - 국제유가, 5월 이후 조정 국면을 보임.
    - MENA 사태, 일본 대지진 등으로 연초 급등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세계경기 불확실성 확대, IEA 비축유 방출, 원유의 투기 순매수 포지션 감소 등의 영향으로 5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
  - 하반기에는 하락 요인이 소폭 우세할 것으로 예상
    -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 경기지표 불안 등 불투명한 경기전망에 따른 수요 증가세 둔화 가능성
    - 글로벌 달러 약세 완화에 따른 원유 투기자금 유출

■ 주요국 환율, 달러 약세 기조 완화 전망

- 일본 경기 부진, 유럽 재정위기, 미국 2차 양적완화 종료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중에는 그동안의 달러약세 현상이 다소 완화될 전망
  - 엔화의 경우 일본 경기부진, 기업들의 해외이전 우려 및 엔 캐리트레이드 가능성 등으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
  - 유로화는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 유로존 잠재 불안 요인으로 인해 강세 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경기지표 부진이 가시화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달러화의 약세기조는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 못함.

(2) 대내여건

■ 긴축적인 재정기조 견지

- 2011년 하반기 거시경제 방향이 내수중심의 안정적 성장으로 선회
  - 정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0%에서 4.5%로 0.5%p 하향 조정
  -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긴축적인 재정기조 견지
    - \* 2011년 예산(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낮게 편성) 규모하에서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 완만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 유지

- 금리정상화 및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기조는 유지되겠으나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을 고려해 완만한 통화정책 기조
  - 소비자물가가 상반기 중 4.3%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현실화, 농산물 가격불안, 전월세 상승세 등 물가환경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금리인상기조는 불가피
  - 하지만 올 1/4분기 말 현재 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부실 및 부동산 PF대출 부실 등의 심각성을 고려해 하반기에도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됨.
    - \* 아울러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미국의 QE2 종료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완만한 금리인상의 요인

### ■ 부동산 경기 약세 지속

- 주택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많아 약세 가능성이 높음.
  - 단기적으로는 금리인상 기조의 지속에 따른 주택수요 위축
  - 중기적으로는 주택의 주수요층인 35~54세 인구 감소,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이 부동산 경기 약세 요인으로 작용
  - 공급측면에서는 건설사 및 자축은행의 동반 구조조정 등으로 위축

## 2.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

### ■ 경제성장률: 3.8%(상반기) → 4.1%(하반기), 연간 3.9%

- 지난해 성장률의 상고하저 현상의 영향으로 올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에 비해 소폭 상승하겠으나 전기 대비로는 유사한 성장흐름이 예상됨.
  - 전기 대비 성장률: 2.0% (2011년 상반기), 2.1%(2011년 하반기)
- 대내외 여건이 상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하반기에도 지속 될 것으로 보기 때문
  - 재정의 긴축기조 및 통화 정책의 정상화 시행
  - 선진국들의 재정 건전성 강화, 중국 등 신흥국들의 긴축기조 유지
  -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하락세
  -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건설투자 부진 지속
  - 유럽재정위기, 국제유가, 미국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 ■ 민간소비: 3.0%(상반기) → 3.2%(하반기), 연간 3.1%

-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기조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중에도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높지 않을 전망
- 하지만 상반기에 비해서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소폭 개선될 전망
  - 취업자 증가추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가구당 소득증가세도 지난해 4/4분기

를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

- 또한 하반기 중 물가상승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민간소비 증가세를 지지해주는 요인

■ 설비투자: 9.5%(상반기) → 6.9%(하반기), 연간 8.1%

- 기저효과, 기업투자환경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설비투자는 하반기 중에도 둔화추세가 이어질 전망

- 유럽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미국경기 둔화조짐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 금리상승 및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투자심리 위축

- 주요 투자지표들도 하반기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를 예고

- 설비투자압력(생산과 생산능력의 증가율 差)의 하락세 지속
- 제조업 평균가동률 하락
-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의 증가세 점차 둔화

■ 건설투자: -10.0%(상반기) → -0.6%(하반기), 연간 -5.1%

- 하반기 중에도 건설투자의 부진은 지속될 전망

-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으로 민간건설 부진 지속
- SOC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공공 공사 발주 물량 감소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부진 지속
- 건설사 및 PF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건설업 체감경기 부진

■ 경상수지(억 달러): +84(상반기) → +65(하반기), 연간 +149

- 수출보다 빠른 수입증가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폭은 상반기에 비해 축소

- 상반기 약 24%의 증가세를 보인 수출(국제수지 기준)은 주요 선진국의 긴축전환 가능성, 중국의 경기 조정, 원/달러 환율하락,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격화 등으로 증가율이 약 14%로 하락

- 수입은 수입단가 상승 및 환율하락의 수출에 비해 높은 약 21%의 증가율이 예상

■ 소비자물가: 4.3%(상반기) → 3.9%(하반기), 연간 4.1%

-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비해서는 낮은 3.9%가 예상됨.
  - 기저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2.6%(2010년 상반기) → 3.3%(하반기) → 4.3%(2011년 상반기)
  - 또한 불안한 모습의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 하지만 하반기 소비자물가의 전망에는 상방 리스크가 더 크게 존재
  - 7월 이후 장마와 집중호우로 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가격이 재상승
  -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 물가안정정책 실효성 제한적

■ 시장금리(회사채, 3년 AA-): 4.5%(상반기) → 4.7%(하반기), 연간 4.6%

- 하반기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상승
  - 기준금리와 국고채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부터는 기준금리의 인상효과가 시장금리에 반영
  - 하지만 대외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대출수요 위축에 따른 은행권의 채권수요 증대로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폭에는 미치지 못하는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원/달러 환율: 1,102(상반기) → 1,040(하반기), 연간 1,071

- 달러공급 우위 지속,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하락 기조를 이어갈 전망
  - 수급측면에서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자본유입 등 외환수급 개선 지속
  - 정책측면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이 원화가치 상승요인으로 작용

2011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분	2010년	2011년						
	연간	1Q	2Q	3Q	4Q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6.2	4.2	3.4	3.7	4.5	3.8	4.1	3.9
(SA, 전기 대비, %)		1.3	0.8	1.0	1.3	2.0	2.1	
민간소비	4.1	2.8	3.1	3.0	3.4	3.0	3.2	3.1
건설투자	-1.4	-11.9	-8.6	-3.1	1.5	-10.0	-0.6	-5.1
설비투자	25.0	11.7	7.6	6.1	7.7	9.5	6.9	8.1
수출(재화+서비스)	14.5	16.8	10.2	7.9	7.6	13.3	7.8	10.4
수입(재화+서비스)	16.9	10.8	7.9	7.8	7.6	9.3	7.7	8.5
소비자물가	2.9	4.5	4.2	4.0	3.8	4.3	3.9	4.1
생산자물가	3.9	6.7	6.4	6.3	5.6	6.5	5.9	6.2
경상수지(억 달러)	282.1	26.1	57.8	38.3	26.3	83.9	64.6	148.5
상품수지(억 달러)	419.0	58.4	83.5	68.1	63.5	141.9	131.6	273.5
수출(억 달러, BOP 기준)	4,642.9	1,276.9	1,439.2	1,369.4	1,434.8	2,716.2	2,804.3	5,520.4
증가율 %	29.6	26.0	22.4	15.8	12.9	24.1	14.3	18.9
수입(억 달러, BOP 기준)	4,223.8	1,218.5	1,355.8	212.0	1,371.3	2,574.3	2,672.7	5,246.9
증가율 %	31.9	26.2	28.7	23.1	19.5	27.5	21.2	24.2
서비스 및 기타 수지(억 달러)	-136.9	-32.3	-25.7	-29.8	-37.2	-58.0	-67.0	-125.0
환율(원/달러, 평균)	1,156.5	1,120.4	1,083.9	1,050.0	1,030.0	1,102.1	1,040.0	1,071.1
회사채수익률(3yrs, AA-)	4.7	4.6	4.5	4.6	4.9	4.5	4.7	4.6
실업률(%)	3.8	4.2	3.7	3.6	3.5	4.0	3.6	3.8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 Ⅲ. 이슈분석: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추이와 개념 정립의 필요성

■ 소득양극화 완화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는 것은 양극화와 불평등도 확대 간 개념적 차이를 오해하는 것에 기인

- 소득 5분위배율 및 지니계수로 살핀 양극화는 최근 완화추세를 보임.
  - 전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며 도시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모두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는 2008년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 또한 2009년까지 상승하다가 2010년에는 하락함.
- 그러나 각종 사회현상을 양극화와 연계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교육비지출 배율은 증가하여 교육비 지출에 따른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공적부조가 커질 경우 하위 소득계층 교육비 지출이 감소하여 오히려 소득 5분위 교육비지출 배율의 크기가 커질 가능성이 존재함.
  -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최근 들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는 그동안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았던 저소득계층의 사회보장제도 편입으로 사회보험료 지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또 하나의 원인으로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은 많고 소득이 적은 계층이 소득 1분위에 포함되어 하위소득계층의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함.
- 이는 불평등도와 양극화를 혼동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함.
  - 절대적, 상대적 격차 확대를 측정하는 불평등도와 두 개의 중심으로 분포가 집락화(clustering)하는 현상을 측정하는 양극화를 혼용
  - 현재 소득양극화(bi-polarization)는 절대적,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확대도 포

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오용되고 있음.

- 양극화를 확대해석하여 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격차 확대에도 양극화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

■ 양극화 개념의 확대해석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개념 설정에 신중해야 함.

- 상대적 불평등도가 심화되더라도 양극화가 완화되는 경우나 그 반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불평등도 및 양극화 해소 정책 수립 이전에 양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불평등도 및 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구분은 경제 및 분배 정책수립의 기본 조건임.
  - 단순한 격차확대까지 양극화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임.
  -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사회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개념 구분이 필요함.

## 제 I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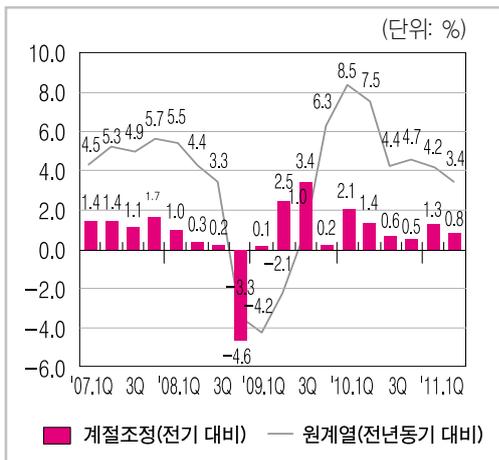
# 최근 경제동향

1. 경제성장
2. 소비 및 투자
3. 수출입 및 경상수지
4. 물가
5. 고용
6. 금리와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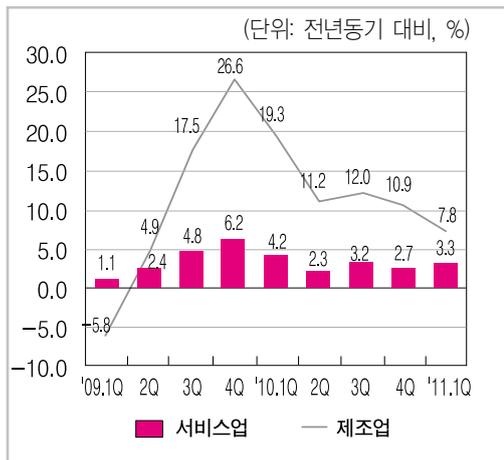
## 1. 경제성장

- 2011년 2/4분기 성장률 3.4%, 전 분기(2011년 1/4분기) 대비 0.8%p 하락
  - 거시정책 정상화,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성장률 둔화 추세 지속
    - 전년동기 대비(%): 4.4(2010. 3/4분기) → 4.7(4/4분기) → 4.2(2011. 1/4분기) → 3.4(2/4분기)
    - 전기 대비(%): 0.6(2010. 3/4분기) → 0.5(4/4분기) → 1.3(2011. 1/4분기) → 0.8(2/4분기)
- 2011년 4~5월 중에도 생산활동 둔화 추세 지속
  - 광공업생산: 4~5월 중 7.6% 증가(1/4분기 10.6%대비 3.0%p 하락)
    - 광공업생산(y\_o\_y<sup>d</sup>, %): 11.7(2010. 4/4분기) → 10.6(2011. 1/4분기) → 7.6(4~5월)
    - 제조업(y\_o\_y, %): 12.0(2010. 4/4분기) → 10.9(2011. 1/4분기) → 7.8(4~5월)
    - \* 제조업평균가동률(%): 80.8(2010. 4/4분기) → 83.1(2011. 1/4분기) → 80.9(4~5월)
  - 서비스업 생산: 3%전후의 낮은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y\_o\_y, %): 3.2(2010. 4/4분기) → 2.7(2011. 1/4분기) → 3.3(4~5월)

〈그림 I - 1〉 GDP 증가율



〈그림 I - 2〉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1)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2. 소비 및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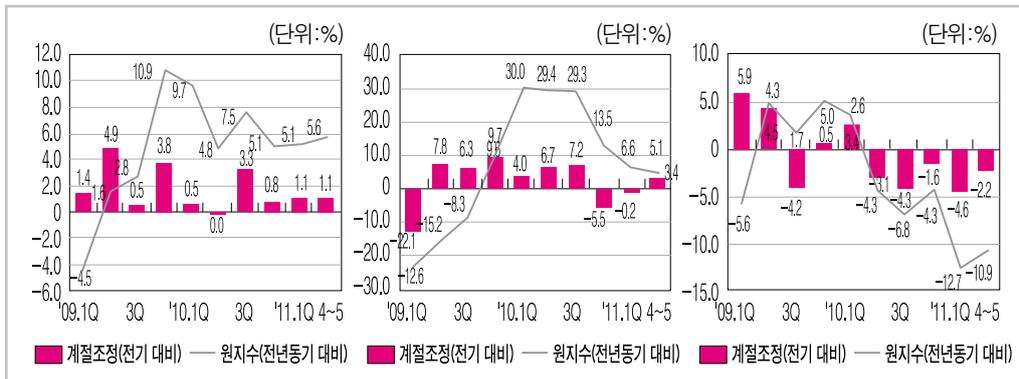
### ■ 소비는 회복세 유지한 반면 설비투자 둔화되고 건설투자 부진 지속

- 소매판매액(불변): 4~5월 중 5.6% 증가하며 견조한 회복세 유지
  - 전년동기 대비(%): 5.1(2010. 4/4분기) → 5.1(2011. 1/4분기) → 5.6(4~5월)
  - 전기 대비(계절조정, %): 0.8(2010. 4/4분기) → 1.1(2011. 1/4분기) → 1.1(4~5월)<sup>2)</sup>
- 설비투자: 4~5월 5.1% 증가에 그치며 둔화세 지속
  - 전년동기 대비(%): 13.5(2010. 4/4분기) → 6.6(2011. 1/4분기) → 5.1(4~5월)
  - 전기 대비(계절조정, %): -5.5(2010. 4/4분기) → -0.2(2011. 1/4분기) → 3.4(4~5월)
  - \*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 둔화: 11.3(2010 4/4분기) → 19.5(2011. 1/4분기) → 1.8(4~5월)
- 건설투자, 4~5월 중에도 10.9% 감소하며 부진 지속
  - 전년동기 대비(%): -4.3(2010. 4/4분기) → -12.7(2011. 1/4분기) → -10.9(4~5월)
  - 전기 대비(계절조정, %): -1.6(2010. 4/4분기) → -4.6(2011. 1/4분기) → -2.2(4~5월)
  - \* 선행지수인 건설수주 부진 지속: -40.2(2010. 4/4분기) → -12.8(2011. 1/4분기) → -12.6(4~5월)

<그림 1 - 3> 소매판매

<그림 1 - 4> 설비투자

<그림 1 - 5> 건설기성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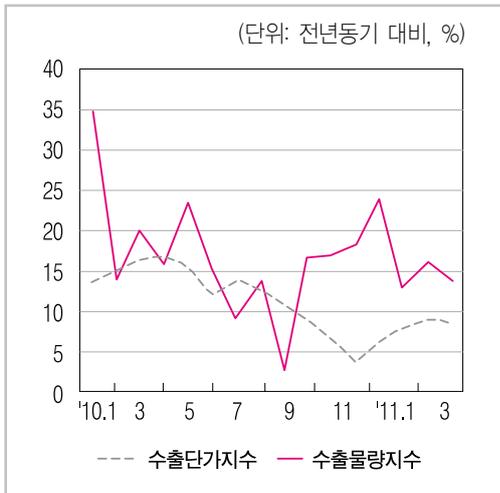
2) 4~5월은 2~3월 대비 증가율,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

### 3. 수출입 및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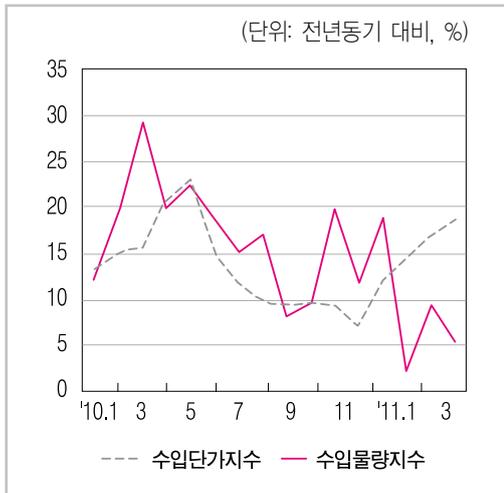
■ 수출입 모두 큰 폭의 증가세 유지

- 수출은 전 분기에 비해 증가세 둔화, 수입은 확대
  - 수출(전년동기 대비, %): 23.8(2010. 4/4분기) → 29.6(2011. 1/4분기) → 20.0(2/4분기)
  - 수입(전년동기 대비, %): 24.6(2010. 4/4분기) → 25.9(2011. 1/4분기) → 27.2(2/4분기)
- 수출은 물량증가, 수입은 단가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

〈그림 1 -6〉 수출단가 및 물량



〈그림 1 -7〉 수입단가 및 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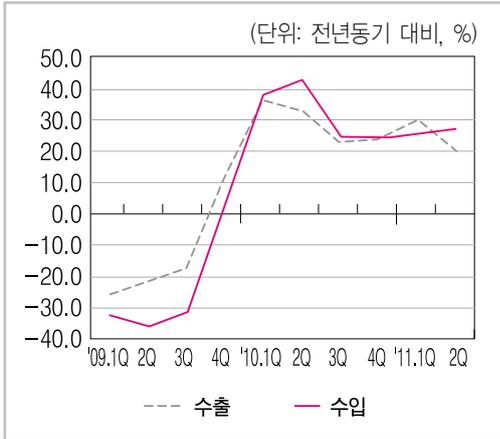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경상수지 1~5월 중 62억 달러 흑자, 전년동기(48억 달러)에 비해 확대

- 상품수지의 흑자폭은 축소된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에 기인
  - 상품수지(억 달러): 122(2010. 1~5월) → 109(2011. 1~5월)
  - 서비스수지(억 달러): -53(2010. 1~5월) → -27(2011. 1~5월)

〈그림 1-8〉 수출입 증가율



자료: 지식경제부, 한국은행

〈표 1-1〉 경상수지

(단위: 억 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4~5월
경상수지	3	89	99	92	26	35
상품	48	122	125	123	58	50
서비스	-42	-19	-30	-22	-25	-2
여행	-20	-14	-27	-19	-22	-14
본원소득	5	-10	13	-1	4	-11
이전소득	-9	-5	-10	-9	-1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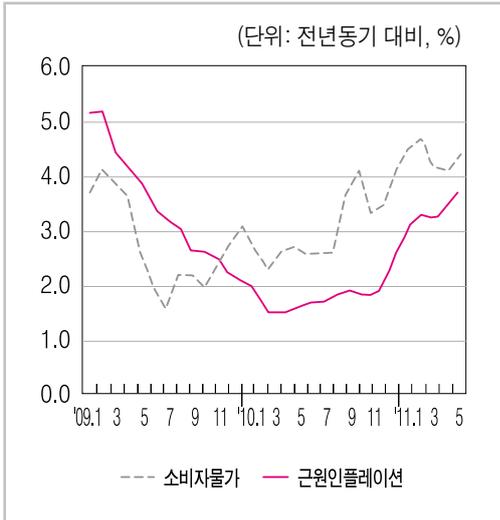
## 4. 물가

■ 소비자물가, 1월 이후 6개월 연속 4%대 상승률(상반기 전체 4.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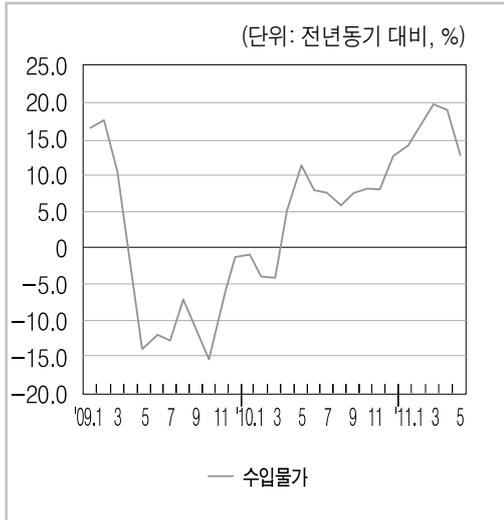
- 농산물 가격 급등세 진정<sup>3)</sup>등에도 불구하고 원유 및 원자재 가격 등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이 물가 전반에 파급되면서 고물가상황 지속
  - 근원인플레이션의 오름세도 지속적으로 확대(6월 3.7%)

3) 농산물(전년동기 대비, %): 30.8(2010. 4/4분기) → 21.2(2011. 1/4분기) → 6.6(2/4분기)

<그림 I -9>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그림 I -10> 수입물가(원화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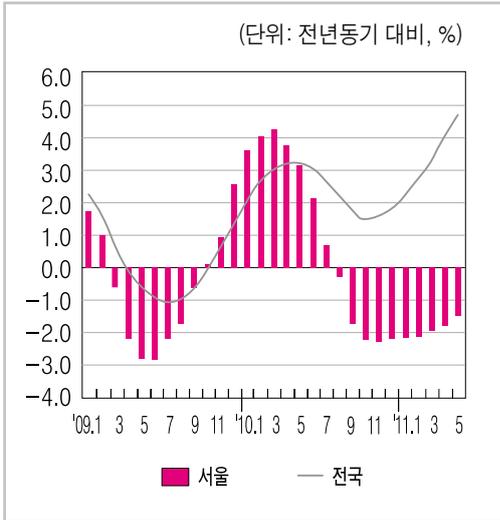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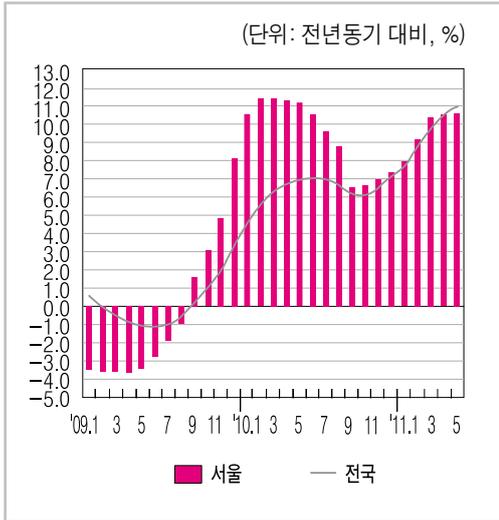
■ 아파트 가격

- 전세가격은 수급불안으로 전국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매매가격은 지방은 상승, 서울지역은 하락세를 보임.

<그림 I -11> 아파트 매매 가격



<그림 I -10> 아파트 전세 가격



자료: 한국은행

## 5. 고용

### ■ 고용회복세 유지되고 있지만 취업 고령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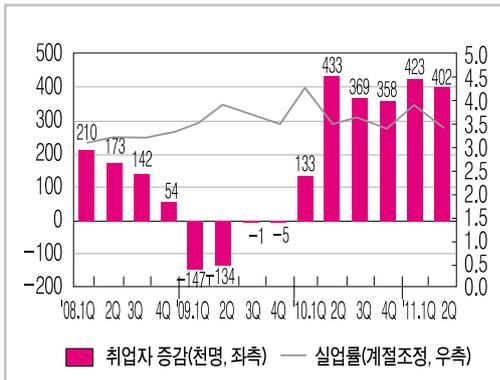
- 2/4분기 중 취업자 수 전년동기비 약 40만 명 증가
  - 취업자(만 명): 36.9(2010. 3/4분기) → 35.8(4/4분기) → 42.3(2011. 1/4분기) → 40.2(2/4분기)
- 실업률도 2/4분기 중 3.4%로 1/4분기(4.2%)에 비해 개선
  - 계절조정 실업률도 2/4분기 중 3.4%로 1/4분기(3.9%)에 비해 개선
- 하지만 취업자 연령층의 고령화 추세가 강화되는 모습
  - 40세 미만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감소 지속
    - \* 15~29세(천명): -43.7(2010. 3/4분기) → -57.1(4/4분기) → -48.1(2011. 1/4분기) → -74.3(2/4분기)
    - \* 30~39세(만 명): 21.0(2010. 3/4분기) → 17.1(4/4분기) → -34.0(2011. 1/4분기) → -13.1(2/4분기)

• 이에 따라 취업자의 고령화 추세가 확대

\* 15~39세 취업자 비중(%): 42.1(2010. 1/4분기) → 39.6(2011. 2/4분기)

\*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 30.0(2010. 1/4분기) → 33.3(2011. 2/4분기)

<그림 1 - 13> 취업자 증감 및 실업률



자료: 통계청

<표 1 - 2> 연령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명, %)

구 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증 감	2010. 1분기	-11	-42	-21	251	-44
	2분기	-58	-13	48	342	113
	3분기	-44	21	40	295	57
	4분기	-57	17	50	288	60
비 중	2010. 1분기	-49	-34	77	285	143
	2분기	-74	-13	59	294	137
비 중	2010. 1분기	17.0	25.1	27.9	19.8	10.2
	2011. 2분기	15.8	23.7	27.1	20.9	12.4

## 6. 금리와 환율

■ 시장금리, 1, 3, 6월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큰 영향 없이 완만한 하락세

-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풍부한 유동성,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금리상승압력 약화

• 기준금리 인상과 회사채 수익률(3년 AA-) 변화 추이

\* 기준금리 0.25%p 인상(2010. 7. 9) → 회사채 -0.59%p(2010. 7. 9~2010. 11. 15)

\* 기준금리 0.25%p 인상(2010. 11. 16) → 회사채 +0.09%p(2010. 11. 16~2011. 1. 12)

\* 기준금리 0.25%p 인상(2011. 1. 13) → 회사채 +0.28%p(2011. 1. 13~2011. 3. 9)

\* 기준금리 0.25%p 인상(2011. 3. 10) → 회사채 -0.20%p(2011. 3. 10~2011. 6. 9)

\* 기준금리 0.25%p 인상(2011. 6. 10) → 회사채 +0.14%p(2011. 6. 10~2011. 7.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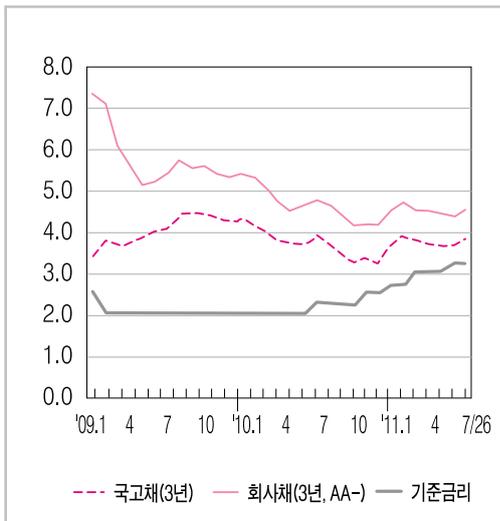
■ 원/달러 환율 하락추세 지속

- 글로벌 달러 약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 유입, 무역흑자 등으로 달러 공급 우위의 시장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

- 3월 중반까지는 중동지역 정정불안, 일본 대지진 사태, 유로존 재정위기 재부각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 강화로 일시적으로 환율하락세가 주춤했으나 그 이후 이들 리스크가 완화되며 다시 하락세

\* 원/달러(평균): 1,087(2011. 4월) → 1,084(5월) → 1,081(6월) → 1,055(7/26)

<그림 I -14>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그림 I -15> 원화환율



자료: 한국은행

## 제Ⅱ장

#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2. 2011년 국내경제전망

## 1. 대내외 여건

### (1) 대외여건

■ 세계경제,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확대

- (미국) 2차 양적완화(QE2) 종료, 신용등급전망 하향 등 불확실성 증대
  - 특히 고용지표 불안 및 주택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회복 모멘텀 약화
    - \* 6월 실업률(%), 9.2%로 3월(8.8%)이후 3개월 연속 상승
    - \* S&P 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 2010년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하락세
  -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 난항 이후 재정지출 축소 불가피
- (일본) 지진/원전사태의 영향 등으로 회복추세 복귀 지연 예상
  - 여전히 방사능 공포, 전력공급 차질 등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
  - IMF는 성장률을 1.4%(4월 전망)에서 -0.7%(6월 전망)로 대폭 하향
- (유로지역)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전망 여전히 불확실
  - 이태리·스페인 국채금리 상승, 그리스·아일랜드 신용등급 강등 등 유럽 재정불안 확산되는 가운데 이들 국가의 낮은 산업경쟁력 및 단일통화 사용의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재정불안 장기화 우려
- (중국) 긴축강화가 변수이지만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치(4%)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 정부의 긴축기조는 지속될 전망
    - \* CPI(전년동기 대비, %): 5.4(2011. 3월) → 5.3(4월) → 5.5(5월) → 6.4(6월)
    - \* 기준금리 작년 이후 5차례 인상(2010년 10월, 12월, 2011년 2월, 4월, 7월)
- IMF,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표 II -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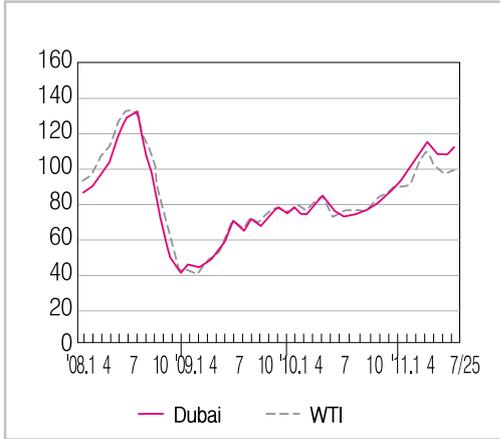
구 분	2010	2011		
		IMF(4월 전망)	IMF(6월 전망)	OECD
세계	5.1	4.4	4.3	4.2
미국	2.9	2.8	2.5	2.6
유로지역	1.8	1.6	2.0	2.0
일본	4.0	1.4	-0.7	-0.9
중국	10.3	9.6	9.6	9.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1.6), OECD Economic Outlook(2011.5)

■ 하반기 국제유가, 상반기와 유사한 약 105달러/배럴 내외로 예상

- 국제유가, 5월 이후 조정 국면을 보임.
  - MENA 사태, 일본 대지진 등으로 연초 급등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세계경기 불확실성 확대, IEA 비축유 방출, 원유의 투기 순매수 포지션 감소 등의 영향으로 5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
  
- 하반기에는 하락 요인이 소폭 우세할 것으로 예상
  - 상승요인
    - \* 중국 등 신흥국들의 상대적 고성장세 유지로 견조한 원유 수요
    - \* 전력공급 차질을 겪고 있는 일본의 화력발전용 원유 수요 증가
    - \* 리비아의 원유생산 정상화 지연에 따른 공급차질
    - \*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필요성 제기
  - 하락 요인
    - \*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 경기지표 불안 등 불투명한 경기전망에 따른 수요 증가세 둔화 가능성
    - \* 글로벌 달러 약세 완화에 따른 원유 투기자금 유출
  - 현재 상황은 하방 리스크 요인이 소폭 우세한 것으로 판단됨
    - \* 유럽 재정문제 확산 우려, 신흥국들의 긴축강화 필요성 지속
    - \* 리비아 등 중동지역의 정세 점차적 안정

〈그림 II-1〉 최근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표 II-2〉 유가 전망

구분	유종	2009	2010	2011
CGES(7/18)	기준유가	61.8	79.9	117.0
	고유가	61.8	79.9	117.8
	저유가	61.8	79.9	115.1
CERA(7/7)	Dubai 기준유가	62.7	78.0	105.9
EIA(7/12)	WTI 기준유가	61.7	79.4	98.4
PIRA(6/28)	WTI 기준유가	61.7	79.4	97.9

주: CERA - 美 캠브리지 에너지 연구소  
 CGES - 런던소재 세계에너지센터  
 EIA - 美 에너지정보청  
 PIRA - 석유산업연구소

■ 주요국 환율, 달러 약세 기조 완화 전망

- 일본 경기 부진, 유럽 재정위기, 미국 2차 양적완화 종료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중에는 그동안의 달러약세 현상이 다소 완화될 전망
  - 엔화의 경우 글로벌 경기둔화,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 경기부진, 기업들의 해외이전 우려 및 엔 캐리트레이드 가능성 등으로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유로화는 ECB 기준금리 인상, 외환보유액 다각화 추세 등 강세요인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 유로존 잠재 불안 요인으로 인해 강세 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경기지표 부진이 가시화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달러화의 약세기조는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주요 투자은행들, 향후 1년간 달러화가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 유로화에 대해서는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표 II -3〉 주요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구분	엔/달러				달러/유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평균	82.06	82.81	84.35	87.06	1.4171	1.4200	1.4144	1.4192
최고	90.00	88.00	89.00	92.00	1.5200	1.5500	1.4800	1.5500
최저	78.00	78.00	78.00	80.00	1.3500	1.3000	1.3000	1.2700

주: JP모건 등 12개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이며 전망시점은 6/24~7/6

자료: 국제금융센터

## (2) 대내여건

### ■ 긴축적인 재정기조 견지

- 2011년 하반기 거시경제 방향이 내수중심의 안정적 성장으로 선회
  - 정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0%에서 4.5%로 0.5%p 하향 조정
  -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긴축적인 재정기조 견지
    - \* 2011년 예산(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낮게 편성) 규모하에서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 \* 재정수지(GDP 대비, %): -1.5(2008년), -4.1(2009년), -1.1(2010년), -2.0(2011년)

### ■ 완만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 유지

- 지난해 7월, 11월, 올해 1월, 3월, 6월 모두 다섯 차례의 금리인상
  - 현재 기준금리는 3.25%로 지난해 7월 2.00%에 비해 1.25%p 상승
  - 주요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유사한 인상 속도
-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을 위한 완만한 통화정책 기조
  - 소비자물가가 상반기 중 4.3%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현실화, 농산물 가격불안, 전월세 상승세 등 물가환경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금리인상기조는 불가피

- 하지만 올 1/4분기 말 현재 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부실 및 부동산 PF대출 부실 등의 심각성을 고려해 하반기에도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됨.
- \* 아울러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미국의 QE2 종료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완만한 금리인상의 요인

### ■ 부동산 경기 약세 지속

- 주택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많아 약세 가능성이 높음.
- 단기적으로는 금리인상 기조의 지속에 따른 주택수요 위축
- 중기적으로는 주택의 주수요층인 35~54세 인구 감소,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이 부동산 경기 약세 요인으로 작용
- 공급측면에서는 건설사 및 자축은행의 동반 구조조정 등으로 위축

## 2. 2011년 하반기 국내경제전망

### ■ 대내외여건을 반영하여 전망의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

- 2011년 주요국 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전제
  - 미국 2.5%, 일본 -0.7% 그리고 중국은 9.6%로 가정
- 국제유가는 주요예측기관의 전망치를 반영하여 하반기 평균 배럴당 105달러로 가정
  - 두바이유 기준: 상반기 105달러/배럴, 하반기 105달러/배럴
- 기준금리, 대내외 불안요인을 감안해 완만한 인상이 예상
  - 2010년말(2.50%)보다 1.00%p 높은 3.50%로 전제(3/4분기 중 인상)

〈표 II-4〉 전망의 주요 전제

(단위: %, \$/bbl)

외생변수	단위	2010년	2011년
GDPCH(중국 성장률)	%	10.3	9.6
GDPJP(일본 성장률)	%	3.9	-0.7
GDPUS(미국 성장률)	%	2.8	2.5
OIL\$DUBAI(두바이)	\$/bbl	78.1	105.0
RP(기준금리, 기말)	%	2.50	3.50

■ 경제성장률: 3.8%(상반기) → 4.1%(하반기), 연간 3.9%

- 지난해 성장률의 상고하저<sup>4)</sup> 현상의 영향으로 올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에 비해 소폭 상승하겠으나 전기비로는 유사한 성장흐름이 예상됨.

- 전기 대비 성장률: 2.0% (2011년 상반기), 2.1%(2011년 하반기)

- 우리 경제 환경이 상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

- 재정의 긴축기조 및 통화 정책의 정상화 시행
- 선진국들의 재정 건전성 강화, 중국 등 신흥국들의 긴축기조 유지
-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하락세
-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건설투자 부진 지속
- 유럽재정위기, 국제유가, 미국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 민간소비: 3.0%(상반기) → 3.2%(하반기), 연간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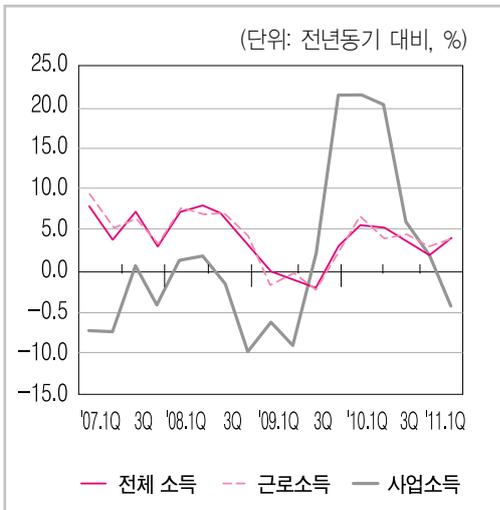
-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기조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중에도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높지 않을 전망

- 기준금리의 잠재적 인상효과가 하반기 중 대출금리 등 시장금리에 반영되면서 가계의 원리금 부담에 따른 처분가능소득의 감소

4) 성장률(전년동기 대비, %): 8.0% (2010년 상반기), 4.5%(2010년 하반기)

- 주택매매가격의 하락으로 마이너스 자산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지출의 증가도 구매력 약화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상반기에 비해서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소폭 개선될 전망
  - 취업자 증가추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가구당 소득증가세도 지난해 4/4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 가계소득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5.3(2010. 2/4분기) → 3.9(3/4분기) → 2.1(4/4분기) → 3.9(2011. 1/4분기)
  - 또한 하반기 중 물가상승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민간소비의 둔화추세를 완화해 주는 요인

<그림 II-2> 가구 소득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3> 소비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 9.5%(상반기) → 6.9%(하반기), 연간 8.1%

- 하반기 중 기저효과,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투자환경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 둔화추세가 이어질 전망
  - 지난해 25% 급증세를 보이며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설비확충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설비투자는 한 자릿수(9.6%)로 둔화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도 지속
  - 하반기 중에도 기업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 \* 유럽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미국경기 둔화조짐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
    - \* 금리상승 및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투자심리 위축
    - \* 특히 중소기업은 금리상승, 구조조정, 대출회수 등으로 투자확대에 어려움
- 또한 설비투자압력, 평균가동률 등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하반기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를 예고
  - 설비투자압력(생산과 생산능력의 증가율 差)의 하락세 지속
    - \* 설비투자압력(%p): 3.4(2010. 3/4분기) → 4.6(4/4분기) → 4.1(2011. 1/4분기) → 1.7(4~5월)
  - 제조업 평균가동률 하락
    - \* 평균가동률(%): 81.2(2010. 3/4분기) → 80.8(4/4분기) → 83.1(2011. 1/4분기) → 80.9(4~5월)
  -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
    - \* 국내기계수주 둔화: 11.3(2010. 4/4분기) → 19.5(2011. 1/4분기) → 1.8(4~5월)

〈표 II -5〉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p, 전년동기 대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4~5월
설비투자조정압력(a-b)	1.4	12.5	20.4	12.1	3.4	4.6	4.1	1.7
a. 제조업생산증가율	4.9	17.5	26.6	19.3	11.2	12.0	10.9	7.8
b. 제조업생산능력증가	3.5	5.0	6.2	7.2	7.8	7.4	6.8	6.1
제조업 평균 가동률(%)	77.8	78.4	80.4	82.3	81.2	80.8	83.1	80.9

자료: 통계청

■ 건설투자: -10.0%(상반기) → -0.6%(하반기), 연간 -5.1%

- 하반기 중에도 건설투자의 부진은 지속될 전망

-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으로 민간건설 부진 지속

- \* 인구구조 변화(저출산, 고령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에 따른 수요 감소, 주택수요 목적의 인식 전환(소유에서 사용), 부동산 수익률 저하 등의 요인 등

- 2009년 조기발주 및 2011년 SOC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공공 공사 발주 물량은 기본적으로 감소 추세 불가피

- \* SOC예산: 2010년 25조1천억 원 → 2011년 24조4천억 원(전년대비 2.7% 감소)

- 건설수주 부진 지속

- \* 건설수주: -40.2(2010. 4/4분기) → -12.8(2011. 1/4분기) → -12.6(4~5월)

- 또한 건설사 구조조정, PF사업 지연 등으로 건설업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건설투자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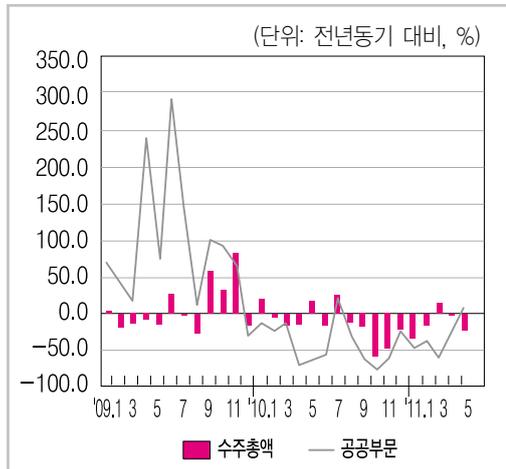
-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지난해 8월 이후 8.29대책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기준치(=100)이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12월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

〈그림 II -4〉 건설기업 BSI



자료: 건설산업연구원

〈그림 II -5〉 건설수주



자료: 국토해양부

■ 경상수지(억 달러): +84(상반기) → +65(하반기), 연간 +149

- 하반기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빠른 수입증가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흑자 폭이 상반기에 비해 축소될 전망
  - 상반기 약 24%의 증가세를 보인 수출(국제수지 기준)은 주요 선진국의 긴축전환 가능성, 중국의 경기 조정, 원/달러 환율하락,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격화 등으로 증가율이 약 14%로 하락
  - 수입은 수입단가 상승 및 환율하락의 수출에 비해 높은 약 21%의 증가율이 예상
  - 서비스수지는 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sup>5)</sup> 및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본원소득수지는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의 영향으로 흑자가 유지되겠지만 경상이전수지는 환율하락에 따른 해외 여행수요 증가,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자추세를 보일 전망

■ 소비자물가: 4.3%(상반기) → 3.9%(하반기), 연간 4.1%

- 2011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비 4.3%상승.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상한선(4%)를 상회
  - 경기회복으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악화,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 불안요인이 가세한 데 기인
    - \* 경기회복세에 따른 임금인상 지속
    - \* 수요측면 물가압력 지표인 GDP갭률 플러스 전환
    - \* 기상불안과 연초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농수산물가격 상승
    - \* 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일본 원전중단, 중동 민주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
  - 반면 원화절상 폭은 국제원유가의 급등세를 상쇄하기는 미흡
    - \* 원/달러환율: 1,148(2010년 12월) → 1,084(2011년 6월), 약 5.9% 하락

5) 도소매, 음식, 숙박 등은 영세자영업 수준인데다 법률, 의료, 교육 등은 진입제한 등으로 생산성이 낮음.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4.6%(2007년 기준)에 불과하며 G7평균의 42%(2007년 기준)수준

-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비해서는 낮은 3.9%가 예상된다.
  -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률이 빨라진 점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 상승률은 기저효과에 의해 다소 둔화
    - \* 소비자물가 상승률: 2.6%(2010년 상반기) → 3.3%(하반기) → 4.3%(2011년 상반기)
  - 또한 불안한 모습의 세계경제 회복세, 중동정세 진정 등으로 둔화 국면을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의 흐름도 하반기 물가안정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국제유가의 향방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하반기 소비자물가의 전망에는 상방 리스크가 존재
  - 6월 소비자물가 지수(120.6)가 지속될 경우, 올 물가상승률은 3.7%이며 이는 최근의 악화된 물가 여건과 과거 추세로 볼 때 현실적이지 못함.
  - 또한 7월 이후 장마와 집중호우로 채소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하반기 물가불안요인으로 가세할 가능성
  - 공공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이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두지는 의문시. 인위적 가격통제 방식은 상반기 휘발유가격 인하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
  
- 시장금리(회사채, 3년 AA-): 4.5%(상반기) → 4.7%(하반기), 연간 4.6%
  
- 2011년 하반기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압력 등의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기준금리가 지난해 7월 이후 5차례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거의 반응하지 못하면서 기준금리와 국고채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부터는 기준금리의 인상효과가 시장금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짐
  - 또한 그동안 시장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외국인 채권 유입 증가도 선물환포지션 제도 시행 등 당국의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유럽재정문제, 중국의 긴축, 미국 경제지표의 불안한 움직임 등 대외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대출수요 위축에 따른 은행권의 채권수요 증대로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폭에는 미치지 못하는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원/달러 환율: 1,102(상반기) → 1,040(하반기), 연간 1,071

- 달러공급 우위 지속,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하락 기조를 이어갈 전망
  - 수급측면에서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자본유입 증가 등 외환수급 개선 지속
  - 정책측면에서 금통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 국내외 금리차가 확대 및 외국인 자금유입을 통해 원화가치 상승요인이 될 것임.
- 하지만 유로존 재정위기의 확산, 미국의 QE2 종료 등은 원/달러 환율하락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전망
  - 그리스 긴축안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인접국가로의 전염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달러화에 대한 선호로 인해 달러 약세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의 QE2종료로 달러화 유동성 확대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달러화의 상승 및 지지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표 II -6〉 2011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10년	2011년						
	연간	1Q	2Q	3Q	4Q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6.2	4.2	3.4	3.7	4.5	3.8	4.1	3.9
(SA, 전기 대비, %)		1.3	0.8	1.0	1.3	2.0	2.1	
민간소비	4.1	2.8	3.1	3.0	3.4	3.0	3.2	3.1
건설투자	-1.4	-11.9	-8.6	-3.1	1.5	-10.0	-0.6	-5.1
설비투자	25.0	11.7	7.6	6.1	7.7	9.5	6.9	8.1
수출(재화+서비스)	14.5	16.8	10.2	7.9	7.6	13.3	7.8	10.4
수입(재화+서비스)	16.9	10.8	7.9	7.8	7.6	9.3	7.7	8.5
소비자물가	2.9	4.5	4.2	4.0	3.8	4.3	3.9	4.1
생산자물가	3.9	6.7	6.4	6.3	5.6	6.5	5.9	6.2
경상수지(억 달러)	282.1	26.1	57.8	38.3	26.3	83.9	64.6	148.5
상품수지(억 달러)	419.0	58.4	83.5	68.1	63.5	141.9	131.6	273.5
수출(억 달러, BOP 기준)	4,642.9	1,276.9	1,439.2	1,369.4	1,434.8	2,716.2	2,804.3	5,520.4
증가율 %	29.6	26.0	22.4	15.8	12.9	24.1	14.3	18.9
수입(억 달러, BOP 기준)	4,223.8	1,218.5	1,355.8	212.0	1,371.3	2,574.3	2,672.7	5,246.9
증가율 %	31.9	26.2	28.7	23.1	19.5	27.5	21.2	24.2
서비스 및 기타 수지(억 달러)	-136.9	-32.3	-25.7	-29.8	-37.2	-58.0	-67.0	-125.0
환율(원/달러, 평균)	1,156.5	1,120.4	1,083.9	1,050.0	1,030.0	1,102.1	1,040.0	1,071.1
회사채수익률(3yrs, AA-)	4.7	4.6	4.5	4.6	4.9	4.5	4.7	4.6
실업률(%)	3.8	4.2	3.7	3.6	3.5	4.0	3.6	3.8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 제Ⅲ장

# 이슈분석

###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추이와 개념 정립의 필요성

1. 도입
2. 소득양극화 및 불균등도 추이
3. 양극화에 대한 개념적 오해
4. 상대적 불평등도, 절대적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개념
5. 결론

### Ⅲ. 이슈분석: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추이와 개념 정립의 필요성

#### 1. 도입

■ 소득양극화와 불평등도 사이에는 개념적 차이가 존재함

- 소득양극화는 소득분포가 특정 수준을 중심으로 두 개의 양 극단으로 집락화 (clustering)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하게는 소득 5분위 배율<sup>6)</sup>로 심화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소득의 편차를 중심으로 소득의 불평등도만을 강조하는 지니계수와는 차이가 있는 개념임.

■ 최근 소득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추이를 살펴보고 개념적 차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함.

- 최근 소득분포의 변화에서 불평등도 및 양극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해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자 함.

---

6)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계층을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커지면 상위소득과 하위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보다 엄격한 의미에서 극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정의될 Wolfson(1994) 지수 및 Esteban and Ray(1994)의 ER 지수, Esteban, Gradin and Ray(1999)의 EGR 지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소득양극화 및 불균등도 추이

### (1) 소득의 분포

■ 소득양극화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008년을 정점으로 최근 2년 동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하락세로 반전됨.

- 2010년 시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6.03을 기록하여 2009년의 6.14에 비해 감소함.
- 또한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도 2010년 4.81을 기록하여 2009년 4.95에 비해 감소함.
-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참여정부(2003~2007년)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8년 6.16을 고점으로 하락세로 반전됨.

- 도시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모두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2010년 시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6.02를 기록하여 2009년의 6.11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도 4.82로 2009년의 4.97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참여정부(2003~2007년) 기간 동안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에는 감소세를 기록함.

■ 소득 10분위 배율<sup>7)</sup>도 2003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하락세로 반전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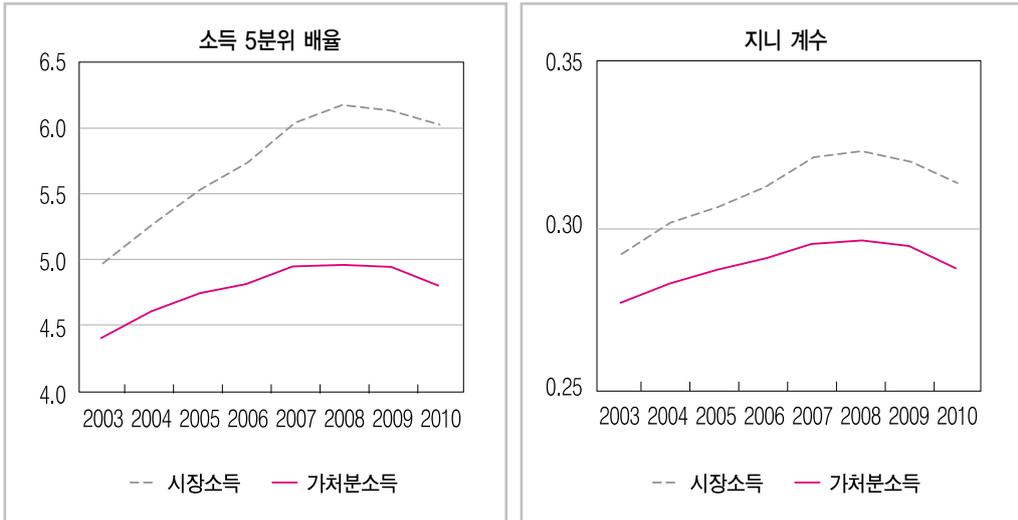
7) 소득 10분위 배율은 상위 10%(10분위) 계층을 하위 10%(1분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됨.

### 제Ⅲ장 이슈분석: 불평등로 및 양극화의 추이와 개념 정립의 필요성

- 전 가구 대상의 소득 10분위 배율은 2003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하락세로 반전됨.
  - 2010년 시장소득 기준 소득 10분위 배율은 4.97을 기록하여 2009년의 5.06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10분위 배율은 4.07로 2009년 4.22에 비해 감소함.
  - 소득 10분위 배율은 지난 참여정부(2003~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8년 5.08을 기록한 이래 하락세로 반전됨.
  
- 도시가구의 소득 10분위 배율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모두 다소 감소함.
  - 2010년 시장소득 기준 소득 10분위 배율은 4.90을 기록하여 2009년의 5.02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10분위 배율은 4.08을 기록하여 2009년의 4.21에 비해 감소함.
  - 전 가구 기준과 마찬가지로 2009년 고점을 기록한 이래 2010년에는 감소함.
  
-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3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하락세로 반전됨.
  
- 전 가구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는 2008년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됨.
  - 2010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14로 2009년의 0.320에 비해 낮아짐.
  - 또한 2010년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8로 2009년의 0.294에 비해 다소 낮아짐.
  - 지니계수는 2003년에서 2008년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나 2009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됨.
  
-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 또한 2009년까지 상승하다가 2010년에는 하락함.
  - 2010년 시장소득을 이용한 지니계수는 0.315로 2009년의 0.320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지니계수 또한 0.289로 2009년의 0.295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 가구와 다르게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상승세가 꺾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 소득양극화 및 불균등도의 추이

(단위: 배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2) 교육비지출의 양극화 추이에 대한 논쟁

■ 상위 소득 계층과 하위 소득 계층 간의 교육비 지출 양극화는 정부보조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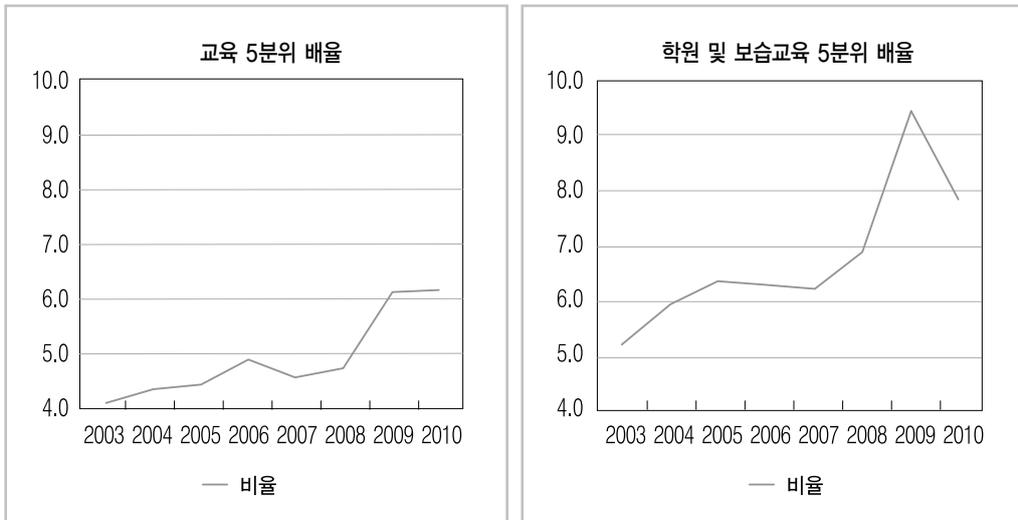
-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교육비지출 배율은 증가하여 교육비 지출에 따른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 대상으로 한 2010년 소득5분위 교육비지출 배율은 6.14로 2009년의 6.11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최근의 수치는 2008년의 4.80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임.
- 하지만 가구의 교육비지출은 정규교육과 관련된 지출과 학원 및 보습교육의 사교육비 지출로 구성되어 있어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하위 소득계층의 정규 교육과 관련된 지출은 공적부조 등 사회보장수혜를 포함하고 있음.

## 제Ⅲ장 이슈분석: 불평등로 및 양극화의 추이와 개념 정립의 필요성

- 따라서 공적부조가 커질 경우 하위 소득계층 교육비지출이 감소하여 오히려 소득 5분위 교육비지출 배율의 크기가 커질 가능성이 존재함.<sup>8)</sup>
- 한편 소득 5분위의 학원 및 보습교육의 지출 배율은 2010년 7.90, 2009년 9.41로 나타나 2008년 6.90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의 격차 확대는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국내경기 위축으로 특히 소득 1분위의 가구의 대폭적인 지출감소에 기인함.<sup>9)</sup>

〈그림 Ⅲ-2〉 교육비 지출 양극화의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8) 2009년 소득1분위의 정규교육 평균 지출액은 4만 8천원으로 2008년 4만 9천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소득5분위의 지출액은 17만 2천원으로 2008년 13만 3천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전체가구 대상으로 한 소득 1분위 가구의 2008년 평균 지출액은 4만 9천원에서 3만 8천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근로자 가구 또한 2008년 6만 6천원에서 5만 8천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사회보험지출의 양극화에 대한 오해

#### ■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부담률 증가를 반드시 양극화로 판단하기엔 무리

-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최근 들어 사상 최고를 기록함.<sup>10)</sup>
  - 2011년 1분기 전국 2인 이상 소득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월평균 소득의 3.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소득 5분위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2.20%로 다른 상위 소득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률 증가가 반드시 양극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저소득층의 부담률 증가는 그동안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았던 저소득 계층의 사회보장제도 편입으로 사회보험료 지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또 하나의 원인으로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은 많고 소득이 적은 계층이 소득 1분위에 포함되어 하위소득계층의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2009년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의 큰 폭의 상승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위축이 소득 감소로 이어진 것이 큰 원인임.<sup>11)</sup>
  - 따라서 사회보험료 부담률 증가는 저소득층의 제도권 사회보장제도의 편입에 기인한 바가 크며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부담률 증가는 사회보험료 지출 증가와 함께 소득 감소에 기인한 바가 큼.

---

10)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부담률 사상 최고' (연합뉴스, 2011년 7월 4일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출비중 8년만에 최고치' (한겨레, 2011년 7월 4일자)의 기사내용을 인용하였다.

11) 2009년 1분기 소득은 96만 5천원으로 전년 동기 소득인 96만 7천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양극화에 대한 개념적 오해

■ 최근 양극화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오류가 빈번하여 단순한 격차확대 사회현상 까지도 양극화로 간주되는 경우가 발생함.

- 극화(polarization)는 특정 분포에 있어 이질적 집단이 다수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
  - 극화는 이질적 집단의 출현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
  - 예를 들어, 기존의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이질적 집단의 출현 또는 중산층의 몰락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소득 양극화
- 현재 소득양극화(bi-polarization)는 절대적,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확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오용되고 있음.
  - 현재 소득양극화의 개념은 기존의 지니계수처럼 상대적 의미의 소득불평등도뿐만 아니라 단순한 소득격차의 확대를 의미하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의 확대로도 오해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사용되는 양극화의 개념은 다수의 이질적 집단의 등장이나 중산층의 붕괴와 같은 실질적 의미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상대적, 절대적 소득불평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오용되고 있음.
- 이러한 오용으로 인해 양극화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격차 확대에도 양극화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
  - 양극화를 확대해석하여 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격차 확대에도 양극화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지역 간 소득 격차 확대,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생산성 향상 차이 등에도 양극화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또는 IT산업과 전통산업의 매출 차이와 같이 산업별로 경기변동의 영향이 상이해서 발생하는 차이의 변동에까지도 양극화의 개념을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함.

■ 양극화 개념의 확대해석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개념 설정에 신중해야 함.

- 양극화 개념을 확대 적용할 경우, 소득분포의 확대와 같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까지도 불공정의 산물로 오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득분포가 확대되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예를 들어 모든 경제주체의 소득이 동일한 성장률로 증가하더라도 소득분포의 범위가 확대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절대적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함.
  - 경제성장에 따라 예외 없이 발생하는 현상마저도 양극화로 해석할 경우 정책목표로서의 경제성장은 불공정한 것이란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큼.
- 절대적 불평등도, 상대적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개념을 정리하여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자 함.
  - 다양한 경제활동의 결과를 양극화로 해석할 경우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유인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목표로서의 격차축소 및 양극화해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과 구분이 필요
  - 따라서 절대적 불평등도, 상대적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개념적 차이를 설명하고 여러 사례분석을 통해 절대적 불평등도, 상대적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개념 설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함.

#### 4. 상대적 불평등도, 절대적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개념

■ 불평등도 및 양극화는 서로 상이한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sup>12)</sup>

- 불평등도는 평균을 중심으로 분포의 형태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
  - 불평등도는 하나의 중심(예를 들어 평균)을 기준으로 분포의 형태를 측정함.

12) 본 보고서에서는 극화(polarization)의 개념을 두 개의 중심으로 집락화되는 양극화(bi-polarization)의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며 각종 지수에 대한 설명은 유경준(2007)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힘. 유경준(2007)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 제Ⅲ장 이슈분석: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추이와 개념 정립의 필요성

- 절대적 불평등도는 중심으로부터의 절대적 거리를 기준으로 분포의 형태를 파악하며 대표적 예로는 절대지니<sup>13)</sup> 및 표준편차가 있음.
  - 상대적 불평등도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정규화(normalization)하여 분포의 형태를 측정하며 대표적 예로는 (상대적) 지니계수<sup>14)</sup>가 있음.
- 양극화는 다수의 중심으로 분포가 집락화(clustering)되는 현상을 의미
- 양극화는 다수의 국지적 중심으로 분포가 집락화하는 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평등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의 정도가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양극화를 측정하는 대표적 예로는 Wolfson<sup>15)</sup>의 양극화지수가 있음.
- 상대적 불평등도, 절대적 불평등도 및 양극화 개념의 혼용은 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정책수립을 어렵게 함.
- 절대적 불평등도의 증가를 양극화로 간주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성장 마저 불공정한 결과로 오해할 수 있음.
- <그림 Ⅲ-3>의 (a)에서 모든 경제주체의 소득이 동일한 증가율(2배)로 성장하여 소득분포가 (c)처럼 될 경우 최상위 및 최하위 간의 소득격차는 2배로 확대되어 절대적 격차는 확대됨.
  - 절대지니의 경우 125에서 250으로 2배 증가하고 표준편차 역시 223.6에서 447.2로 2배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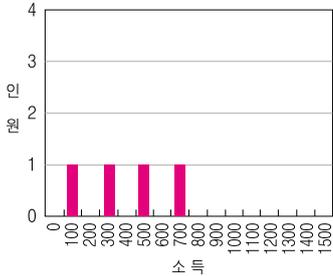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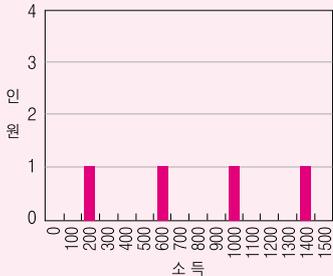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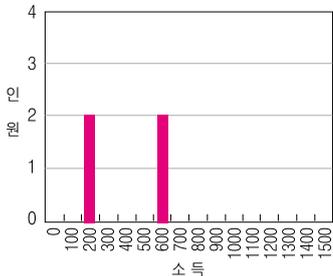
13)  $n$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y_i$ 가 개인  $i$ 의 소득을 나타낼 경우 절대지니는  $\frac{1}{2n^2} \sum_{i=1}^n \sum_{j=1}^n |y_i - y_j|$  임.

14) 상대지니는 절대지니를 평균값( $\mu$ )으로 정규화한 수치로  $\frac{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로 정의된다.

15) 중위소득 근처의 소득 분산이 커질수록 소득양극화가 커진다고 정의하는 Wolfson(1994, 1997) 지수는  $W=2(2(0.5-L(0.5))-G) \frac{u}{m}$ 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L(0.5)$ 는 하위 50% 소득계층이 전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G, u, m$ 은 각각 상대지니, 평균 및 중위값을 나타낸다.

- 그러나 이 경우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지니계수는 0.3125로 동일함.
- 두 개의 중심으로 소득분포가 집락화하는 양극화 또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Wolfson의 양극화지수 역시 0.375로 일정함.
- 절대적인 격차의 증가를 상대적 격차의 증가 또는 양극화와 혼동할 경우 경제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득분포의 확대마저 불공정한 결과로 오해하는 부작용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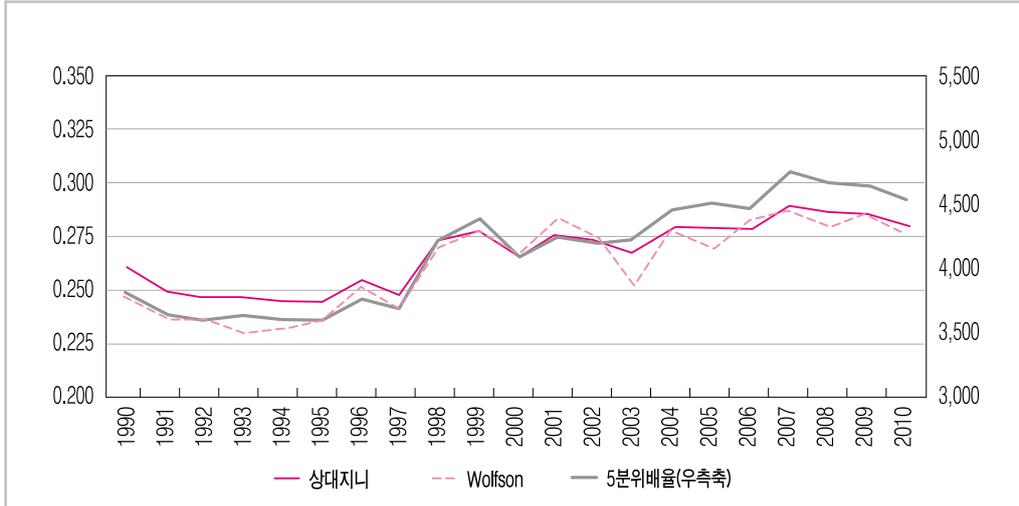
〈그림 Ⅲ-3〉 불평등도 및 양극화 비교

구분		절대적 불평등도		상대적 불평등도	양극화
		절대지니	표준편차	(상대) 지니계수	Wolfson 지수
(a)	초기 상황 	125	223.6	0.3125	0.375
(b)		250	447.2	0.3125	0.375
(c)		100	200	0.250	0.500

### 제Ⅲ장 이슈분석: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추이와 개념 정립의 필요성

- 상대적 불평등도가 심화되더라도 양극화가 완화되는 경우나 그 반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소득분포가 (c)의 경우처럼 두 개의 국지적 평균으로 집락화(clustering)할 경우 양극화가 발생하고 Wolfson의 양극화지수는 0.375에서 0.500으로 증가하지만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0.3125에서 0.250으로 감소함.
  - 반대로, 소득분포가 (c)에서 (a)로 변할 경우 양극화는 완화되더라도 상대적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상대적)지니계수는 0.250에서 0.3125로 증가함.
- 1990년 이후 데이터를 살펴보아도 상대적 불평등도와 양극화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 경우가 다수 있음(〈그림 Ⅲ-4〉 참조).
  - 10분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대지니, Wolfson 지수 및 5분위배율은 모두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음.
  - 그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큰 변화는 없었으나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2007년 이후에는 다시 하락세를 보임.
  - 전체 기간(20년) 중 약 1/5에 해당하는 4회에 걸쳐 상대적 불평등도는 하락했으나 양극화는 심화되거나, 혹은 반대로 불평등도는 심화되고 양극화는 완화되는 현상이 발생했음.

〈그림 III-4〉 소득불평등도 및 양극화 추이



주: 도시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10분위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각 지수를 계산했음. 각 분위 내 모든 근로자들의 소득이 해당 분위 평균소득과 같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자료: 통계청

- 상대적 불평등도를 기준으로 양극화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임.
  - 따라서 (상대적)지니계수의 증가만으로 양극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임.
  -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양극화지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상대적 불평등도와 양극화의 개념 구분이 필요함.

## 5. 결론

- 불평등도 및 양극화 해소 정책 수립 이전에 양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불평등도 및 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구분은 경제 및 분배 정책수립의 기본 조건임.
  - 초기상황인 (a)에서 상대적 불평등도 및 양극화 심화 없이 (b)의 경우로 이동할 것인지, 혹은 양극화는 심화되더라도 상대적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c)로 이동할 것인지에 따라 경제 및 분배정책의 방향이 달라짐.
  - 따라서 불평등도 및 양극화에 대한 개념적 오해를 해소하고 양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정책수립의 선결조건임.
-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양자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격차확대까지 양극화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임.
  -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사회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개념 구분이 필요함.

〈 참고문헌 〉

설윤(2011), “최근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 KERI Brief 11-10, 한국경제연구원.

유경준(2007),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Esteban and Ray(1994), “On the Measure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62, pp.819-851.

Esteban, Gradin and Ray (1999), “Extensions of a Measure of Polariz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ve OECD Countries”, Working Papers 24, Institute de Estudios Economies de Galicia Pedro Barrie de la Maza.

Wolfson(1994), “When Inequalities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May 1994, pp.353-358.

Wolfson(1997), “Divergent Inequalities: Theory and Empirical Result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43 n.3, pp.401-421.

## 부록

#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구 분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비		투자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달러	전년동기 대비(%)				
2007년	5.1	7.2	21,695	5.1	5.4	4.2	9.3	1.4
2008년	2.3	2.9	19,296	1.3	4.3	-1.9	-1.0	-2.8
2009년	0.2	-1.5	17,175	0.0	5.6	-1.0	-9.1	3.4
2010년	6.2	14.8	20,759	4.1	3.0	7.0	25.0	-1.4
2005년	1/4	2.7	4.8	2.5	3.7	-0.3	3.4	-3.1
	2/4	3.4	3.9	4.7	4.7	1.8	2.8	0.9
	3/4	4.5	6.7	5.7	6.3	1.5	4.1	-0.3
	4/4	5.1	9.3	5.5	2.7	3.9	10.8	0.3
2006년	1/4	6.1	9.4	5.7	6.0	3.8	7.2	1.9
	2/4	5.1	9.1	4.5	6.7	0.1	8.0	-4.2
	3/4	5.0	8.7	4.3	6.0	4.0	12.0	-0.5
	4/4	4.6	5.4	4.5	7.5	5.7	5.7	5.1
2007년	1/4	4.5	4.5	4.9	5.9	7.3	12.6	4.4
	2/4	5.3	7.2	5.2	6.3	5.7	13.0	2.0
	3/4	4.9	6.3	5.4	4.8	1.5	4.0	-0.2
	4/4	5.7	10.2	4.7	4.7	3.1	8.0	0.4
2008년	1/4	5.5	8.9	4.5	3.6	-0.6	2.8	-2.5
	2/4	4.4	8.3	2.7	4.3	0.6	2.0	-0.5
	3/4	3.3	5.3	1.8	4.6	2.1	5.3	0.4
	4/4	-3.3	-9.4	-3.6	4.7	-8.7	-13.3	-7.7
2009년	1/4	-4.3	-13.6	-4.7	7.8	-7.5	-21.9	1.6
	2/4	-2.2	-7.1	-1.1	7.3	-3.0	-18.1	4.3
	3/4	1.0	1.8	0.4	5.3	1.0	-9.4	3.2
	4/4	6.0	13.1	5.6	2.2	6.2	12.2	4.0
2010년	1/4	8.1	22.2	6.6	3.4	12.5	29.1	4.3
	2/4	7.2	17.8	3.5	2.9	6.8	30.5	-2.3
	3/4	4.4	9.8	3.6	2.5	6.8	26.6	-3.1
	4/4	4.7	11.1	2.9	3.2	3.4	15.9	-2.9
2011년	1/4	4.2	9.8	2.8	1.5	-2.2	11.7	-11.9

무역 · 국제수지

구 분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보유액 <sup>1)</sup>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06년	3,254.6	14.4	3,093.8	18.4	314.3	140.8	2,389.6	929.6
2007년	3,714.9	14.1	3,568.5	15.3	371.3	217.7	2,622.2	938.2
2008년	4,220.1	13.6	4,352.7	22.0	51.7	32.0	2,012.2	1,257.5
2009년	3,635.3	-13.9	3,230.8	-25.8	378.7	327.9	2,699.9	1,167.6
2010년	4,663.8	28.3	4,252.1	31.6	419.0	282.1	2,915.7	1,138.9
2009년 2월	254.0	-18.5	226.0	-30.7	17.7	25.8	2,015.3	1,516.4
3월	278.9	-22.5	239.2	-35.5	34.9	37.6	2,063.4	1,377.1
4월	303.3	-19.9	248.7	-35.0	42.6	35.1	2,124.8	1,348.0
5월	278.2	-29.4	234.1	-39.5	38.2	31.5	2,267.7	1,272.9
6월	322.1	-13.6	256.9	-32.1	54.8	48.9	2,317.3	1,284.7
7월	319.1	-22.1	276.8	-35.6	50.2	40.6	2,375.1	1,240.5
8월	289.5	-20.9	274.1	-32.2	19.2	13.0	2,454.6	1,244.9
9월	339.2	-9.4	297.6	-24.7	39.7	32.6	2,542.5	1,188.7
10월	339.7	-8.5	304.0	-15.8	35.5	32.0	2,641.9	1,200.6
11월	339.9	17.9	295.3	2.4	48.5	41.7	2,708.9	1,167.4
12월	360.1	32.8	329.2	23.9	21.8	7.1	2,699.9	1,167.6
2010년 1월	307.4	45.4	315.4	26.7	10.0	-5.7	2,736.9	1,156.5
2월	330.4	30.1	310.4	37.4	5.9	-3.6	2,706.6	1,158.4
3월	373.1	33.8	355.8	48.7	32.0	12.0	2,723.3	1,130.8
4월	393.0	29.6	355.2	42.8	37.4	5.3	2,788.7	1,115.5
5월	388.9	39.8	348.5	48.9	36.6	40.0	2,702.2	1,200.2
6월	420.6	30.5	352.5	37.2	48.4	43.3	2,742.2	1,210.3
7월	404.2	26.7	350.0	28.7	52.7	44.6	2,859.6	1,187.2
8월	364.1	26.0	352.7	28.7	28.3	19.8	2,853.5	1,189.1
9월	394.1	16.2	350.0	17.6	44.5	35.0	2,897.8	1,142.0
10월	433.4	27.6	370.0	21.7	54.9	51.1	2,933.5	1,126.6
11월	412.6	21.4	386.7	30.9	31.7	19.3	2,902.3	1,157.3
12월	441.5	22.6	400.6	21.7	36.8	21.1	2,915.7	1,138.9
2011년 1월	444.8	44.7	418.4	32.7	15.6	1.6	2,959.6	1,114.3
2월	384.8	16.5	363.2	17.0	15.3	11.3	2,976.7	1,127.9
3월	480.5	28.8	454.7	27.8	27.5	13.3	2,986.2	1,107.2
4월	486.0	23.6	441.5	24.3	33.3	12.8	3,072.0	1,072.3
5월	474.6	22.01	453.5	30.1	16.3	21.8	3,050.8	1,080.6
6월	477.6	13.6	449.4	27.5	36.3	29.9	3,044.8	1,078.1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실업·이자율

구 분	물가 <sup>2)</sup>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sup>3)</sup>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 대비(%)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6년	0.9	2.2	3.5	5.7	8.3	7.9	5.17	1,352.2
2007년	1.4	2.5	3.2	5.5	11.2	10.2	5.70	1,712.5
2008년	8.6	4.7	3.2	0.6	14.3	11.9	7.02	1,529.5
2009년	-0.2	2.8	3.6	-0.6	10.3	7.9	5.81	1,429.0
2010년	3.8	2.9	3.7	5.8	8.7	8.2	4.66	1,765.0
2009년 2월	4.4(0.4)	4.1(0.8)	3.9(3.5)		11.4	8.8	7.07	1,139.8
3월	3.5(0.8)	3.9(1.5)	4.0(3.7)		11.1	8.4	6.14	1,140.5
4월	1.5(1.0)	3.6(1.8)	3.8(3.7)		10.6	7.7	5.68	1,322.1
5월	-1.3(0.2)	2.7(1.8)	3.8(3.8)		9.9	7.3	5.16	1,400.5
6월	-3.1(-0.1)	2.0(1.7)	3.9(3.9)		9.6	7.0	5.21	1,395.2
7월	-3.8(1.1)	1.6(2.1)	3.7(3.7)		9.7	7.7	5.46	1,460.0
8월	-3.0(1.6)	2.2(2.4)	3.7(3.7)		10.0	8.0	5.74	1,577.9
9월	-2.6(1.7)	2.2(2.5)	3.4(3.6)		10.0	7.7	5.58	1,659.5
10월	-3.1(0.9)	2.0(2.3)	3.2(3.5)		10.5	7.8	5.60	1,630.6
11월	-0.4(1.3)	2.4(2.4)	3.3(3.6)		9.7	7.6	5.43	1,583.5
12월	1.8(1.8)	2.8(2.8)	3.5(3.6)		9.3	8.1	5.35	1,646.6
2010년 1월	2.8(0.7)	3.1(0.4)	5.0(4.8)		9.3	8.1	5.40	1,682.2
2월	2.4(1.0)	2.7(0.7)	4.9(4.4)		9.4	8.6	5.32	1,599.0
3월	2.6(1.6)	2.3(1.1)	4.1(3.8)		9.3	8.8	5.02	1,665.5
4월	3.2(2.4)	2.6(1.6)	3.8(3.7)		9.4	9.0	4.69	1,730.3
5월	4.6(2.9)	2.7(1.7)	3.2(3.2)		9.3	8.9	4.48	1,648.3
6월	4.6(2.6)	2.6(1.5)	3.5(3.5)		9.7	9.3	4.65	1,691.9
7월	3.4(2.7)	2.6(1.8)	3.7(3.7)		9.3	8.8	4.81	1,731.1
8월	3.1(2.9)	2.6(2.2)	3.3(3.4)		8.5	8.0	4.68	1,762.2
9월	4.0(3.9)	3.6(3.3)	3.4(3.7)		8.1	7.7	4.41	1,815.8
10월	5.0(4.0)	4.1(3.5)	3.3(3.5)		7.6	7.2	4.13	1,889.7
11월	4.9(4.3)	3.3(2.9)	3.0(3.2)		7.4	7.3	4.19	1,924.7
12월	5.3(5.3)	3.5(3.5)	3.5(3.5)		7.2	6.9	4.17	2,002.5
2011년 1월	6.2(1.6)	4.1(0.9)	3.8(3.6)		6.5	6.6	4.52	2,091.6
2월	6.6(2.3)	4.5(1.7)	4.5(4.0)		5.0	5.2	4.72	2,002.9
3월	7.3(3.6)	4.7(2.2)	4.3(4.0)		4.3	4.7	4.54	2,002.7
4월	6.8(3.9)	4.2(2.2)	3.7(3.6)		3.9	4.5	4.54	2,153.1
5월	6.2(3.8)	4.1(2.2)	3.2(3.3)		3.7	4.4	4.44	2,121.9
6월	6.2(3.5)	4.4(2.4)	3.3(3.3)		-	-	4.40	2,074.6

주: 2) (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구 분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 산업	평균 가동률(%)	소매 판매액 <sup>4)</sup>	국내기계 수주 <sup>5)</sup>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전년동기 대비(%)	
								공공	민간
2006년	8.4	80.0	4.0	17.4	9.2	9.0	2.6	0.6	4.0
2007년	6.9	80.1	5.2	20.6	8.2	23.6	6.6	8.4	4.6
2008년	3.4	77.6	1.1	-14.1	-2.3	-7.6	4.9	6.5	2.2
2009년	-0.1	74.4	2.7	-10.3	-9.4	5.0	3.2	21.2	-5.8
2010년	16.2	81.2	6.6	11.2	25.1	-18.7	2.7	8.5	-18.7
2009년 2월	-10.2	67.3	-5.7	-27.7	-17.8	-18.5	11.0	34.2	0.9
3월	-10.6	70.0	-4.9	-25.4	-19.7	-14.0	3.1	16.6	-5.0
4월	-8.2	72.5	-4.2	-27.5	-21.2	-8.2	5.4	33.7	-5.2
5월	-9.1	73.7	1.7	-23.9	-16.2	-14.7	-1.7	16.6	-11.4
6월	-1.1	76.6	7.6	0.6	-7.7	25.1	14.5	44.4	-1.4
7월	0.7	77.7	1.1	6.9	-14.8	-2.7	-2.8	16.6	-11.6
8월	1.0	76.4	0.5	-18.6	-15.2	-25.8	-8.3	14.1	-18.9
9월	11.1	79.3	6.8	31.4	6.2	56.6	6.7	31.9	-5.5
10월	0.2	77.8	9.9	-6.2	-6.1	30.7	-6.1	3.5	-10.3
11월	18.1	78.0	9.8	57.5	14.6	80.9	3.5	8.8	1.8
12월	34.2	79.3	12.8	30.6	21.5	-16.6	12.8	18.3	9.7
2010년 1월	37.0	79.3	6.7	11.8	26.3	20.2	7.2	5.1	9.6
2월	18.3	80.5	12.8	-2.0	23.7	-4.6	0.8	12.9	-3.5
3월	22.4	81.5	9.7	20.6	38.3	-16.5	10.5	22.2	5.3
4월	19.5	81.7	7.3	27.2	32.5	-14.1	-1.0	-0.1	1.0
5월	20.6	82.1	3.6	56.3	28.4	17.4	7.3	9.6	7.8
6월	16.5	83.1	3.8	2.6	27.7	-16.9	0.2	6.7	-0.3
7월	14.8	82.7	8.9	-16.5	31.5	25.6	6.7	14.0	3.9
8월	15.9	79.7	9.4	26.6	41.2	-12.5	6.5	1.4	11.2
9월	2.9	81.2	4.5	2.3	17.1	-18.1	-11.8	-14.6	-9.8
10월	13.4	79.7	4.1	9.9	21.6	-58.8	0.9	10.5	-4.8
11월	11.2	80.5	6.9	-9.2	13.1	-48.7	-0.5	17.1	-9.4
12월	10.7	82.2	4.3	34.9	7.4	-22.5	8.2	18.6	-0.5
2011년 1월	13.6	84.8	10.6	19.7	21.2	-33.9	-5.2	7.0	-12.5
2월	9.0	82.2	-0.8	26.1	1.0	-16.7	-14.1	-11.1	-17.3
3월	9.1	82.4	5.2	14.4	0.5	13.7	-0.7	-2.8	0.0
4월	6.9	80.4	5.1	6.6	-0.3	-2.7	-4.1	3.5	-10.7
5월	8.3	81.4	6.2	-3.1	10.5	-22.5	-6.3	-3.5	-9.4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 / 2011년 7월 26일

1판1쇄 발행 / 2011년 7월 29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허창수

편집인 / 허창수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0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1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